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	
		배포일자	2023년 7월 21일(금) 총 2매		
담당 부서	토지정보과	담당자	• 지 적 팀 장 이상유 ☎440-4571 • 담 당 자 강상훈 ☎440-4572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지적확정측량 업무편람서 발간

- 지적확정측량 방법, 측량성과 검사 방법 등 업무편의와 노하우 공유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지적확정측량의 증가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처리 활용부터 법령해석과 실무사례 공유를 위해 ‘인천시 지적확정측량 업무편람’을 발간했다고 밝혔다.

이 업무편람은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변환하는 토지 경계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 ▲지적의 이해 ▲지적확정측량 방법 ▲측량성과 검사 방법 ▲사전컨설팅 등 업무사례 순서로 제작됐다.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, 최신의 전문지식 습득과 표준화된 업무 수행으로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인천시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 개정, 새로운 업무사례, 측량 기술 변화

등 업무편람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개정판을 3년 주기로 발간할 계획이다.

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“변화하는 인천시의 모습과 더불어 지적 확정측량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통해 인천시가 한발 더 나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인천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
《관 련 사 진》

○「지적확정측량 업무편람」 발간서

발간등록번호
54-6280000-000618-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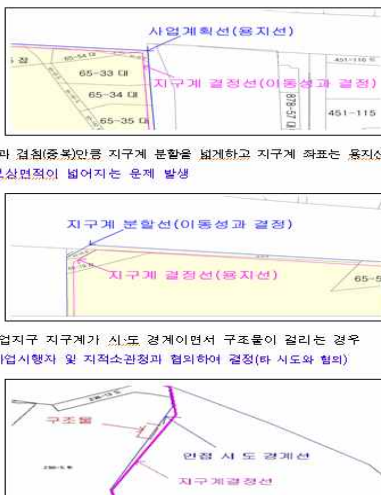
인천의 77년
대한민국의 미래

지적확정측량 업무편람

2023. 7.

인천광역시
http://www.incheon.go.kr

- 지구계선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표해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하고, 특히 인근지역에 수치지역이 있는 경우 남게 될 도해지역의 전체 폭을 감안하여 결정
 - ※ 지구계에 사업지구 외 건축물 등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적소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
- 지구계 결정 사례
 - ① 사업·용지선대로 지구계 분할 후 지구계 좌표를 이통 결정
 - ⇒ 사업지구 폭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 발생



- ② 성과 겹침(중복)한 지구계 분할을 없애고 지구계 좌표는 용지선으로 결정
 - ⇒ 보상면적이 넓어지는 문제 발생
- ③ 사업지구 지구계가 시도 경계이면서 구조물이 걸리는 경우
 - ⇒ 사업시행자 및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 결정(타 시도와 협의)

- 34 -